

# 중화세계 주변부 기억으로서의 티베트 문학 \*

— 「티베트, 가죽 끈 매듭에 묶인 영혼(西藏,系在皮繩扣上的魂)」을 중심으로

金良守 \*\*

1. 중화세계의 중심과 주변
2. 자시다와(扎西達娃)라는 작가의 탄생 배경
  - 2-1. 중국현대사와 티베트
  - 2-2. 작가적 아이덴티티의 문제
3. 「티베트, 가죽 끈 매듭에 묶인 영혼(西藏,系在皮繩扣上的魂)」 분석
  - 3-1. 작품 개관
  - 3-2. 티베트의 시간, 근대의 시간
  - 3-3. 종교의 길, 공산주의의 길, 회미한 제3의 길
4. 맺는말 - 소수자(minority)의 불안감

## 1. 중화세계의 중심과 주변

본 연구는 현재 중국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티베트 출신의 작가 자시다와(扎西達娃, 1959~ )의 대표작 「티베트, 가죽 끈 매듭에 묶인 영혼(西藏,系在皮繩扣上的魂)」(1985)을 텍스트로 삼아 주변부에서 중화세계의 지배질서를 바라보는 티베트인의 시선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왜 티베트인가? 티베트가 외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불교와의 관련일 수도 있고, 오지(奧地)의 신비한 매력일 수도 있으며, 물질주의적 삶에 대한 대안적 상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위 요소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필자가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아이덴티티(identity)를 상실해가고 있는 중화제국 주변부로서의 티베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준엄한 역사적 교훈이다.

한국 학계의 티베트문학 연구성과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sup>1)</sup>. 티베트 문학에 대한 관심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6-321-A00849)

\*\* 동국대학교 중문학과 부교수 yangsu@dongguk.edu

1) 티베트에 관한 서적은 국내에도 많이 출판되어 있으나, 주로 이색문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한 여행기가 많고, 문화에 대한 안내서도 상당수 있으나 주로 민속학적 각도에서 씌어진 것이다. 이외에 달라이라마 혹은 불교관련 서적도 많이 있고, 티베트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티베트 현대문학에 관한 국내의 기존연구는 거의 없다. 국내의 기존 연구 중에서 가장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티베트와 중국의 관계사에 대한 접근으로, 김한규의 『티베트와 중국』(소나무, 2000)이다. 이 책은 티베트와 중국의 관계를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연구성과이다. 중국 내 티베트 문학에 관한 연구로는 80년대 중반 자시다와가 특유의 독특한 풍격으로 문단에 알려진 후 발표된 평론들인데, 주로 중국 내 소수민족 문학의 위상 내지 문학에 있어 종교적 구원의 문제에 관한 것이

은 결코 여유로운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날로 성장해가고 있는 동아시아 내 중국의 패권주의, 동아시아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의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 문제에서 파생된 ‘위기의식’이 바로 필자와 같은 한국의 중국학연구자에게 ‘중화세계’의 중심과 주변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강요한 것이다<sup>2)</sup>.

중화세계의 중심과 주변에 대한 논의의 기반을 위해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최소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내 22개 성(省), 5개 자치구 중에서 시짱자치구(西藏自治區)로 불리는 티베트는 7세기에 토번(吐蕃)이라는 통일왕국을 건설한 바 있고, 당(唐)의 수도 장안(長安)을 점령할 정도의 군사대국이었으며, 8세기 후반에는 불교를 국교로 제정하고 사원을 건설하여, 범어(梵語)로 된 불경을 티베트어로 옮기는데 힘썼다. 티베트대장경의 원전은 한역(漢譯)도 현존하지 않는 불교문헌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미 그렇게 독자적인 문화를 일구어온 것이다. 1642년 티베트에는 달라이라마 5세를 법왕(法王)으로 하는 통일정권이 수립되는데, 청조는 수도 라싸에 주장대신(駐藏大臣)을 두고 이후로 줄곧 내정간섭을 했다. 신해혁명(1911)으로 청조가 붕괴된 후 달라이라마 13세는 인도에서 귀국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에 의지하여 근대화를 시도하지만, 보수세력의 저항을 받아 실패한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국민정부(國民政府)는 티베트에 자치권을 주었지만, 1949년 이후에는 상황이 일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티베트에 군대를 주둔시켜 점거하게 된다. 이른바 ‘티베트를 해방한다(解放西藏)’는 명분이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현대사에서 ‘해방(解放)’이라 하면 국민당 지배에서 공산당 지배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장기간 영국 영향 하에 있던 달라이라마 정권 하의 티베트에 있어, ‘해방’은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인민해방군은 1950년 티베트진격을 개시, 51년 해방군이 라싸에 입성하면서 ‘티베트해방’이 달성된다. 이후로 중국정부는 대량의 한인(漢人)을 티베트에 이주시키고, 농업집단화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 티베트 각지에서는 저항이 격렬히 전개되었고, 이는 1959년 ‘라싸봉기’로 정점에 달했지만, ‘해방’군에 의해 무력진압되고, 달라이라마 14세(1935~ )는 인도로 망명하게 된다.<sup>3)</sup>

중국어에 ‘민족(民族)’이라는 어휘가 생겨나게 된 것은 20세기 초반이었다. 서구의 개념이 일본어로 번역되던 당시 생겨난 이 ‘민족’이라는 어휘는 중국 내에서 정치적 컨텍스트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1920년대부터 ‘소수민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소련 스탈린의 ‘민족형식’에서 영향받은 것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의 기치하에

---

거나, 마술적 리얼리즘 기법의 라틴아메리카 작가, 예컨대 보르헤스 등과의 관련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특히 역사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티베트에 대한 정치학, 민속학, 종교학, 그리고 문학 연구가 고르게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왔다. 자시다와 소설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연구자는 마키타에이지(牧田英二)이다. 마키타에이지는 일찍부터 중국 소수민족 작가에 관심을 갖고, 그 방면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해왔다. 1989년 출판된 『中國邊境の文學 - 少數民族の作家と作品』(同學社, 東京)은 이 방면의 대표적 저작으로, 자시다와를 포함, 어원커족의 우물드, 회족의 장청즈(張承志), 조선족 임원춘(林元春) 등 32명의 대표적 소수민족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집대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키타에이지는 자시다와를 포함한 현대 티베트 작가 소설 번역본을 출판하기도 했다. (『風馬の輝き-新チベット文學』, JICC出版局, 『發見と冒険の中國文學』第8卷) 마찬가지로 일본 연구자 후지이쇼조(藤井省三)도 『中國文學この百年』, 『現代中國の輪郭』 등에서 자시다와의 작품을 분석하며, 그 역사적 상처와 티베트인들의 아이덴티티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2)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직후부터 티베트를 평화적으로 해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티베트에 대한 연구를 중시해왔다. 중국에서는 티베트학을 ‘장학(藏學)’이라고 한다. 1951년 5월 티베트가 ‘평화적으로 해방’되자, 정부원 문화교육위원회는 연구자들을 결성하여 “서장공작대(西藏工作隊)”를 조직했다. 80년대 개혁·개방 이후에는 연구기관이 점점 많아져, 지금은 50여개에 달한다. 중국의 장학연구에 관해서는 김성수, 「중국 티베트학의 성립 배경과 티베트사 서술의 특징」, 『중국학자들의 소수민족 역사 서술』, 동북아역사재단, 2008, 146~207쪽을 참조.

3) 藤井省三, 『100년간의 중국문학』, 토마토, 1995, 129~130

국가통합의 기초로서 ‘민족의 평등과 단결’이라는 슬로건이 제기되었고,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족정책을 행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민족’이라는 어휘가 사용되는 경우는 ‘민족정책’, ‘민족사무위원회’, ‘민족학원’ 등과 같이 소수민족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압도적 다수를 점하는 한족(漢族)과 그 외의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현대중국의 민족구성은 한족과 그 문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국(帝國) 시스템에 있어, 한족(漢族)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0억이 넘는 한족의 거대함과 비교할 때, 소수민족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 하는 좡(壯)족이 1500만 정도이고,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민족은 18개에 달한다. 소수민족은 중국인구에서 8%에 지나지 않으나, 중국 국토에서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면적은 60% 이상이다. 소수민족 거주지역은 국경 부근인 경우가 많고, 국방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국가통합의 요소’로서 필요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 중국공산당은 소수민족의 자결권·분리권을 인정하며 연방제를 구상했다. 예컨대 1945년 마오쩌둥(毛澤東)의 「연합정부론」에는 ‘각 소수민족에게 민족자결권을, 그리고 자발적 희망에 따라 한족(漢族)과의 연방국가를 만들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건국직전 자결권·분리권과 연방제 구상은 파기된다. 49년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에는 소수민족의 집거지역에서는 민족 구역자치를 행하며, 민족의 언어·풍속·관습·종교를 보호하는 기본정책을 고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후로 점차 다민족 통일국가에 있어 구역자치의 원칙이 제도화 되어간다.<sup>4)</sup>

한 때 당(唐)을 위협할 정도의 강국이었고,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운 바 있는 티베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중화인민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는 55개 소수민족의 하나로서, 그리고 22개 성 5개 자치구의 하나로 존재할 뿐이다. 우리에게 티베트는 어떤 이미지로 알려져 있는가. 적어도 일반인들의 관심은 포탈라궁과 같은 비경(秘境)이거나 유목민들의 생활 혹은 성지순례와 같은 종교활동이나 조장(鳥葬) 풍속 등 주로 볼거리(spectacle)에만 맞추어져 있는 것 아닌가. 멋진 사진 속의 티베트인은 마치 말을 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포스트콜로니얼 문예이론가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이 말했던 ‘서벌턴(subaltern)’과 같이. 티베트의 멋진 풍광을 담은 사진에 있어서는 경치가 중심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진이 아닌 문학작품을 연구의 텍스트로 삼은 것은, 티베트인들의 말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티베트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줄곧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유린당해왔던 그들의 역사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 3. 자시다와라는 작가의 탄생 배경

#### 3-1. 중국현대사와 티베트<sup>5)</sup>

4) 天兒慧外, 『岩波現代中國事典』, 岩波書店, 1999, 525쪽의 기술을 참고.

5) 최근 국내의 학문적 경향에 있어 문학관련 논문에서 배경적 역사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 논문은 티베트 문학 연구의 초기적 시도이기 때문에 컨텍스트적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절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 절의 티베트 역사에 대한 기술은 石浜裕美子著·永橋和雄写真, 『図説 チベット 歴史紀行』, 河出書房新社, 1999, 108~117쪽과 Françoise Pommaret, *Le Tibet, Une civilisation blesée*, Gallimard, 2002의 일본어 번역본 ポマレ, フランソワーズ著 後藤淳一訳, 『チベット』, 創元社, 大阪, 2003의 105~131쪽에서 요약, 정리했다.

20세기에 들어오면 티베트는 남쪽에서는 영국, 북쪽에서는 러시아, 동쪽에서는 중국이 위협하는 형세에 놓이게 된다. 티베트가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맺게 된 조약은 1904년 대영제국과 맺은 라싸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영국의 영허즈번드 대위가 군대를 거느리고 티베트에 침입하여 달라이라마 13세가 몽골로 탈출하여 부재중이던 때 조인된 것이었다. 조약의 내용은 티베트의 통상에 있어 영국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1907년에는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 티베트와의 교섭은 중국을 통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1910년에는 티베트에 대한 영국의 간섭에 대항하는 청(淸)의 군대가 라싸에 진주했고, 달라이라마 13세는 인도로 탈출했다.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 청왕조는 붕괴되었고, 뒤를 이어 수립된 중화민국은 티베트에 대해 간섭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달라이라마 13세는 티베트로 돌아왔고, 역내의 중국인을 내보냈다. 1913년 달라이라마 13세는 독립을 선언했지만, 중국은 이를 비준하지 않았다. 1913년부터 49년 사이에 티베트는 사실상 독립상태에 있었다. 그 기간 중 달라이라마 13세는 근대화를 추진했지만, 1933년 그가 사망하자 근대화정책에 저항하던 귀족, 승려계급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은 “티베트 해방(解放西藏)”을 선언했다. 일반적으로 중국현대사에서 ‘해방’이라 하면 국민당 지배하에서 공산당 지배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장기간 영국의 영향하에 있던 달라이라마 정권하의 티베트에 있어 ‘해방’은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35년생인 달라이라마 14세가 당시 아직 어렸기 때문에 티베트는 중국에 대해 어떤 정책도 취하지 못했다. 1950년 10월 중국공산당 군대는 사원 등을 부수면서 동 티베트를 점령했는데, 그것은 당시 서남군구정치위원이던 덩샤오핑(鄧小平)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티베트침략에 대하여 인도는 중국에 항의했지만, 당시는 한국전쟁의 와중이어서 티베트의 비참한 상황은 크게 주목되지 못하였다. 51년에는 라싸에 도착하여 티베트 중앙정부와 「티베트 해방에 관한 17개 조약」을 체결한다. 이 협정의 제 1조는 ‘티베트 인민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조국의 가족 품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었다. 또 달라이라마의 지고성(至高性)과 티베트 전통문화를 존중한다고 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1951년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다시 중앙티베트를 침략했다. 2만명의 군대가 라싸에 주둔했는데, 이는 당시 라싸 인구의 절반에 해당했다. 54년에는 티베트와 중국을 잇는 도로를 완성했는데, 이를 통해 군사수송이 용이해졌다.

1959년 3월 이궁(離宮)에 체류하고 있던 달라이라마 14세는 중국군으로부터 연극공연 초대를 받게 되는데, 중국군이 달라이라마를 납치하려 한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지면서, 민중들이 이궁(離宮)을 둘러싸고 중국군의 지프를 가로 막게 되었다. 어수선한 틈을 타서 달라이라마 14세는 변장을 하고 이궁(離宮)을 벗어나 인도로 망명하게 된다. 당시 인도의 네루수상은 달라이라마 14세와 대량의 티베트난민을 받아들여, 달라이라마는 이듬해인 60년 다람살라에서 망명정부를 세우게 된다. 1959년 이후 중국은 티베트문화를 본격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한다. 공산주의 사상이 강제로 교육되었고, 토지나 목초지가 ‘근면한 대중’에게 분배되었으며, 승려들의 수업생활은 폐지되었고, 예술작품은 중국으로 옮겨졌다. ‘티베트의 반동세력을 섬멸하고’, ‘농노를 해방’하는 캠페인이 생겨났다. 1959년 달라이라마 14세가 인도로 망명하자 중국정부는 달라이라마 14세의 지위를 부정하고 판첸라마 10세를 티베트의 대표자로 삼는다. 판첸라마 10세는 나중에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상무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지만, 1962년 마오쩌둥(毛澤東)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티베트정책을 격렬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그는 64년 공개비판을 받기도 했고, 9년여 동안 투옥생활을 하기도 했다.

1965년 10월에 현재의 ‘시짱자치구(西藏自治區)’가 수립되어, 정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의 행정구역이 되지만, 곧바로 문화대혁명이 발발하면서 티베트는 또 한차례 큰 혼란을 겪게 된다. 문혁기간 중 대다수의 승려들이 투옥되거나 환속을 강요받았다. 또 각종 불교관련 문화재들이 파괴·약탈되는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되기도 했다. 1959년 이전에는 6000개이던 사원·승원이 76년에는 모두 사라졌다. 문혁이 끝난 1980에는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 후야오방(胡耀邦)이 티베트를 시찰하면서 중국의 기존 정책을 비판했다. 후야오방은 티베트인의 자치를 추진했고, 티베트에 거주하던 중국인의 85%를 퇴거하도록 했으며, 티베트어 교육이 재개되도록 했다. 1982년에는 중국헌법 35조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내용이 생겼다. 또 이때 티베트는 외국인에게 개방되었고, 85년에는 라싸대학이 창설되었다. 하지만 1987년 후야오방 총서기가 경질되자, 그간의 자유화시기도 막을 내린다.

1989년 1월 판첸라마 10세가 급사하자 이른바 ‘모살설’이 유포되면서 티베트사회는 크게 동요된다. 개혁개방 이후 티베트인들의 삶이 크게 궁핍해지자 민심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된다. 동년 3월 라싸에서 승려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당국은 유혈진압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관계자의 일제검거에 나선다.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당시 시짱자치구위원회 서기였던 후진타오(胡錦濤)였다. 89년 6월에는 ‘6.4 천안문사건’이 일어났고, 10월에는 중국정부에 대해 일관되게 비폭력의 자세로 일관해왔다는 점이 평가되어 달라이라마 14세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 후 달라이라마 14세의 국제적 지위는 예전에 비해 높아졌지만, 중국정부의 그에 대한 태도도 한층 경직되었다. 중국정부는 판첸라마 10세의 공적을 미화하는데 더욱 주력했으며, 95년 달라이라마 14세가 판첸라마 10세의 후계자를 지명하자, 중국당국은 그 후계자를 납치하고 자신들이 선정한 새로운 후계자를 내세우게 된다. 당시 6세이던 판첸라마의 후계자는 ‘세계 최연소 정치범’이 되어 아직도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90년대 이후 중국은 티베트에 대한 정치적 감시를 강화해왔으며, 2006년에는 베이징과 라싸를 연결하는 철도를 개통하여 내부적으로 한층 가까이 편입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티베트인들의 반중국 정서는 여전하여,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 3-2. 작가적 아이덴티티의 문제

자시다와<sup>6)</sup>는 티베트출신 작가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며, 현재에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sup>7)</sup>, 생애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일단 일본 연구자 마키타 에이지(牧田英二)에 의한 기본적인 정리를 따라가 보기로 하자. 자시다와는 티베트족 소설가로,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망명하고 티베트가 완전히 독립을 잃게 되는 1959년에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쓰촨(四川)성 빠탕(巴塘)현 출신의 티베트족으로, 해방군과 함께 라싸해방에 가담한 바 있는 경력을 가진 소수민족 간부였다. 은퇴하기까지 공산당의 고급 간부를 지냈다. 모친은 충칭(重慶)사람으로, 한족(漢族)이었다. 자시다와는 유년기를 충칭(重慶)에서 보냈으며, 1974년 중학 졸업 후 티베트 극단에서 무대미술, 대본작업을 했고, 78년에는 베이징(北京)에서 1년간 연수를 받은 후 79년부터 한어(漢語)로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처녀작 「침묵(沈黙)」에서는 베이징에서 라싸로 전학 온 소녀의 체험을 통해 1976년의 1차 천안문사건 당시 저우언라이(周恩來)를 추도하던 분위기를 그

6) 중국어 기준으로는 Zhaxi Dawa로, 티베트어 기준으로는 Tashi Dawa로 표기.

7) 최근에는 문학작품 창작 보다는 티베트를 다룬 TV방송, 영화제작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근황은 李瑋의 인터뷰인 「最後的守望者」, 『西藏文藝』, 2005-5가 있다.

렸다. 이어서 「예불(朝佛)」, 「별빛이 없는 밤(沒有星光의夜)」, 「적막한 정오(沈寂的正午)」 등의 작품을 썼다. 한어(漢語)로 작품을 쓰는 이 티베트출신 작가의 등장은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회족(回族)의 장청즈(張承志), 토가족(土家族)의 차이치하이(蔡測海), 어원커족(鄂溫克族)의 우올드(烏熱爾圖) 등과 함께 소수민족 작가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85년 경부터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마술적 리얼리즘(Magical Realism)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게 된다. 자시다와는 시공(時空) 넘나들기, 시간의 역류와 순환, 현실과 환상의 교차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독자를 끌어들이는 한편 종교적 구원과 현대 물질문명에 대한 갈망이 혼재되어 있는 동시대 티베트인의 정신세계를 그려냈다<sup>8)</sup>. 마술적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으로는 본고에서 소개할 「티베트, 가족관 매듭에 묶인 영혼」(1985) 외에 「세기의 초대」<sup>9)</sup>(1988)와 「수수께끼 같은 황혼」<sup>10)</sup>(1984), 그리고 「티베트, 비밀의 세월」<sup>11)</sup>(1985) 등이 있다.

중국문단에서 자시다와의 등장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내용 전개에 있어 ‘환상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가 티베트 출신이라는 면도 있었다. 그 이전의 티베트 문학이란 티베트를 제재로 한 문학에 불과했으며, 여타 소수민족 문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민해방군의 한족(漢族) 작가가 담당했다. 1951년 중국 인민해방군이 티베트에 진주한 후, 쉬화이중(徐懷中), 산차오(單超), 류커(劉克) 등의 소설, 바이화(白樺), 가오핑(高平) 등의 시가 50~60년대에 발표되었는데, 주로 티베트 ‘해방’과 ‘건설’에 관한 것이었다. 그 이후에도 티베트 문학은 한족(漢族)작가의 작품에 의해 발전방향이 결정되었다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sup>12)</sup>.

중국 쪽 자료들을 보아도 자시다와의 집안배경이나 성장과정, 교육정도, 그리고 작품에 있어서 마술적 리얼리즘의 영향 등은 이미 거의 공통된 내용이다. 다만 여기서는 그가 티베트적 아이덴티티를 획득하는 ‘과정’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Patricia Schiaffini-Vedani는 「The

8) 『SINICA』 1998年 4月號, 「特集—中國現代文學案內」, 大修館書店, 55쪽.

9) 「세기의 초대(世紀之邀)」(1988)라는 소설의 주인공 산치에는 현대의 시대 라싸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 친구 사이튼(귀족의 후예로 역사학 대학강사)의 결혼식장에 가던 길에, 이전 세기(世紀) 대귀족의 장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장원에서는 마을사람들이 몇 년동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리던 사람은 쿠데타에 참가했다가 정부군에게 붙잡혀, 고향의 장원으로 호송되고 있는 산토이다. 산치에와 마을사람들이 모두 노인으로 변했을 때 겨우 돌아온 산토이는 어린아이로 변해 있었고, 그는 “귀족이 없는 시대, 50년 후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한다. 산토이는 마중나와 있던 사람 중 유일하게 젊음을 유지하고 있던 한 소녀의 치마 속으로 들어갔고, 그를 태아로 뱃속에 받아들인 소녀는 방랑의 여행을 떠난다. 한편 산치에는 산토이 대신 석실(石室)에 가뒀진다. 이 작품의 전반적 분위기는 상실감으로 가득차 있고, 상실감과 아이덴티티의 위기라는 주제는 자시다와의 다른 도시소설에서도 보인다.

10) 「수수께끼같은 황혼(謎樣的黃昏)」(1984)의 주인공은 베이징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귀족의 후예 바이지라는 소녀이다. 그녀는 티베트출신의 공산당 간부와 결혼하지만, 이내 일상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닌다. 그녀는 티베트 청년의 투쟁을 그린 소설을 쓰기도 하고, 인도로 출국할 것을 꿈꾸기도 하지만, 결국은 불량소년 꺼리와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폐가의 옥상에서 해질녘의 황혼을 바라보며 ‘신비한 계시’ 혹은 ‘UFO’를 기다린다는 이야기이다.

11) 「티베트, 비밀의 세월(西藏, 隱秘歲月)」(1985)의 주인공 다랑과 츠런지무는 쿠오강(廓康)이라는 마을에서 이웃해 살던 소년과 소녀였다. 다랑은 어릴 때부터 츠런지무와 결혼하고 싶어했으나, 츠런지무의 부모는 임종시 신의 계시에 따라 그녀가 비구니가 되어 고승(高僧)을 모시게끔 한다. 절망에 빠진 소년 다랑은 산으로 들어가서 수십년 동안을 쿠오강 마을을 바라보며, 애절한 그리움 속에 살아가고, 소녀 츠런지무는 신비한 고승을 위해 처량하게 일생을 보내게 된다. 소설은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기 1910-1927, 1929-1950, 1953-1985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이 작품은 쿠오강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주인공들의 운명적 삶의 전개를 주요 모티브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영국인, 미국인 파일럿, 인민해방군 등 외지인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소설 속 이야기는 모두 티베트의 최근 70년간의 역사적 변화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 티베트인들은 독자적 언어와 문화, 종교, 역사를 갖고 있으나,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公民)으로 편입되어 있다. 이런 존재적 모순에 과거 학살의 기억이 더해져 아이덴티티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12) 『發見と冒険の中國文學』 第8卷, 『風馬の輝き—新チベット文學』, JICC出版局, 東京, 1991, 牧田英二의 해설, 237~238쪽.

"Condor" Flies over Tibet : Zhaxi Dawa and the Significance of Tibetan Magical Realism」<sup>13)</sup>이라는 글에서 자시다와의 티베트적 아이덴티티가 그가 성인이 된 후에 일정한 필요에 의해 다시금 선택된 것이라는 내용을 기술한 바 있는데, 그간 기존의 자료에서는 거의 검토되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매우 참신하다. Patricia의 주장을 일단 좀 정리해보기로 한다.

자시다와에게는 장넨성(張念生)이라는 중국이름이 있었으며, 그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한족(漢族)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다. 그는 충칭에서 자라던 때에도 한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티베트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 자시다와는 10대의 나이에 가족을 따라 ‘시짱자치구(西藏自治區)’에 오면서 비로소 티베트 문화를 접하게 된다. 문혁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자시다와는 티베트에서 미술과 무대장치 등을 공부하다가 1978년 1년간 장학금을 받고 베이징의 중국 경극원에서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 때 그는 당시 출현한 ‘상훈문학’과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외국문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1970년대 후반은 티베트인에게 매우 희망적인 시대였는데, 그것은 그 때부터 소수민족 언어, 문화의 자치권이 인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77년에는 『西藏文藝』라는 잡지가 생겨났으며, 1980년에는 정치지도자 후야오방(胡耀邦)이 티베트를 방문하여 연설을 했는데, 당시 그의 연설 내용은 듣는 이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겨, 티베트의 지식인이나 문화인 중에는 당시의 이 연설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1979년 티베트로 돌아온 자시다와는 소설을 써서 발표했는데, 애초에는 장넨성(張念生)이라는 이름으로 투고했지만 『西藏文藝』의 저우옌양(周艷揚)이라는 편집인이 티베트 이름을 쓸 것을 권유했다.<sup>14)</sup>

문혁 직후의 이른 바 ‘베이징의 봄’ 시기에 문예지 편집인의 권유로 티베트적 정체성을 만들어가게 되는 과정은 마치 일본에서 활동하는 재일교포 작가들이 뒤늦게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 왜 기존의 중국자료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것일까. 아마도 중국의 전문 연구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 자료에서 줄곧 이 작가의 ‘아이덴티티’ 부분이 빠져있었던 것은 중국에서 티베트 문제는 아직도 매우 예민한 정치적 사안이며, 중국의 티베트문학 연구자들도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의 시각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마술적 리얼리즘’ 부분에만 연구가 집중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자시다와는 한족과 티베트족 사이의 경계에 걸쳐있는 혼종적 성격의 작가이며, 그의 티베트 아이덴티티도 일정부분 외적 요구에 의해 이미지가 ‘만들어진’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다.

### 3. 「티베트, 가죽 끈 매듭에 묶인 영혼(西藏,系在皮繩扣上的魂)」 분석

#### 3-1. 작품 개관

「티베트, 가죽 끈 매듭에 묶인 영혼(西藏,系在皮繩扣上的魂)」<sup>15)</sup>(1985)은 자시다와의 첫 번째 마술적 리얼리즘 작품이자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인공 ‘나’는 소설가이다. 짜뽀사

13) Luran R. Hartley and Patricia Schiaffini-Vedani (Edit), *Modern Tibetan Literature and Social Change*,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and London, 2008에 수록.

14) Luran R. Hartley and Patricia Schiaffini-Vedani (Edit), 앞의 책, 204~205쪽. 이 글에서 Patricia는 또 다른 티베트 작가 썬보(色波, 중국어: Sebo, 티벳어: Gsal po, 1956~ ) 역시 본명은 쉬밍량(徐明亮)이었으며, 자시다와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티베트적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15) 본고에서는 扎西達娃, 『西藏隱秘歲月』, 長江文藝出版社, 1993에 수록된 작품을 텍스트로 함.

(扎妥寺)라는 절의 제 23대 활불(活佛) 쌍계다푸(桑杰達普)는 곧 임종하려 한다. 동공이 점점 열리면서 그는 ‘상바라(香巴拉)’의 전쟁을 떠올린다. 쌍계다푸가 환각상태에 빠져들어 허공에 대고 말했다. “네가 커룽 설산을 넘을 때, 연화생대사의 손금 가운데 서게 되면, 쫓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깨달음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천만갈래 복잡하게 얽힌 손금에서 오직 한 갈래 인간정도로 향하는 생존의 길이 있다.” “두 캉바(康巴)지역의 젊은이가 상바라로 통하는 길을 찾고 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전에 썼던 소설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활불은 열반에 들었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미완성 소설을 넣어두는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소설 속의 그들 이름은 타빼이(塔貝)와 총(瓊)이었다. 총의 아버지는 『케사르 대왕전』을 노래하는 예인이었다. 총은 언제나 똑같이 반복되는 말발굽과 구리종 소리를 들으며, 산에서 양을 키우며 자랐다. 타빼이가 총 앞에 나타나자, 총은 본능적으로 타빼이를 따라가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학질에 걸린 것처럼 몸을 떨더니, 남자가 덮고 있는 양모 담요속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총은 그녀가 살던 곳을 떠나 타빼이를 따라나선다. 그녀는 『케사르』노래를 부르러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를 떠나서, 목표도 없고 영원히 목적지에도 이르지 못할 기약없고 정처도 없는 방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출발하면서 타빼이가 묻는다. “허리에 찬 그 가죽 끈은 뭐냐?” “날짜를 세는 거예요.” 가는 도중 그들은 오채투지를 하는 불교신자들도 만났고, 며칠 동안 사람 그림자 한 번 못볼 때도 있었다. 그들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된다. 노란 모자를 쓴 청년이 총에게 관심을 갖고 말을 걸어온다. 그는 마을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전자계산기를 갖고 있다. 그는 총에게 중세시대를 살다 나온 사람이나고 묻는다. “이봐요 아가씨, 내가 젊은이들이 재밌게 노는 곳에 데려다 줄게요. 거기 가면 음악도 있고, 맥주도 있고, 디스코 음악도 있어요.” 도시적 쾌락을 맛본 총은 그곳에 머무르고 싶어한다. 총은 떠날 수 밖에 없었지만 얼마 있다가 도망쳤고, 한참 후에 다시 타빼이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다시 갑촌(甲村)이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마을사람들이 어귀까지 몰려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알고보니 이 마을에는 긴 가뭄이 있었고, 한 점쟁이가 오늘 저녁 두 사람이 비를 몰고 동쪽에서 마을로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타빼이는 홀로 술집에 갔다가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된다. 노인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저 길로 간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네. …… 저 길만은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1964년인가 …… 인민공사가 시작됐네. 여기저기서 공산주의란 걸 얘기했지만 막상 그게 뭔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냥 극락같은 거라고만 했지.” 노인은 쿤룬 정상을 넘어 한 이틀 걷다보면 무수하게 많은 작은 골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연화생대사의 손금이라는 말을 했다. “누구든지 그 손금 속에 들어가면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사람들 말이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 있다고는 하더군. 다른 길로 가면 다 죽음이네. 근데 어느 길이 사는 길인지 전혀 표시가 안돼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타빼이는 그 길로 가봐야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러자 노인은 총을 자기 집 며느리로 달라고 한다. 이 때 노인의 아들이 나타난다. 젊은이는 전자시계를 차고, 허리에는 워크맨을 차고, 머리에는 헤드폰을 쓰고 있다. 타빼이는 총을 남겨두기로 결정한다. 총은 남게 된 걸 알자 뿔 듯이 좋아한다. 트랙터를 운전하다가 조금 다친 타빼이는 홀로 길을 떠나 산을 오르다가 피를 토한다. 내출혈이었다. 소설 속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나는 내 소설속 주인공을 찾기 위해 쿤룬 정상에 올랐다. 쿤룬산을 넘자 시간은 거꾸로 가기 시작했다. 전자동 태양력 시계에 나타난 시간과 날짜는 정상 속도의 5배로 거꾸로 가고 있었다. 태양은 여전히 동에서 서로 움직이고, 우주는 물리적 운동법칙을 따르고 낮과 밤도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시계는 여전히 거꾸로 돌고, 요일과 날짜도 거꾸로 가고 있었다. 마침내 연화생대사의 손금에 다다른 것이다. 이 때 기적같이 총을 만났다. 계곡에서 타빼이가 죽어가고 있었다. 이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 타빼이는 그게 무슨 소리



인가를 내게 간절하게 묻는다. 타빠이는 그걸 신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미국 LA의 제23회 올림픽 개막식의 TV 방송이었다. 타빠이는 죽고, 이번에는 나와 흥이 함께 길을 떠난다. 시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 3-2. 티베트의 시간, 근대의 시간

“높은 고원의 산골짜기, 삐죽삐죽 솟아오른 바위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양떼, 산기슭 아래 작게 나뉘어진 밭땀기들, 드문 농가, 시냇물 옆 물레방아, 들담을 낮게 쌓아 지은 농가들, 무거운 등짐을 진 사람들, 소 목에 걸린 구리종들, 외로운 돌개바람, 눈부신 햇빛 ……”<sup>16)</sup> 소설 「티베트, 가족 끈 매듭에 묶인 영혼」은 ‘티베트적’으로 보이는 풍경들로 가득하다. 작품 초입에 나오는 활불(活佛)과 그가 들려주는 상바라의 이야기, 흥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게샤르 대왕전』, 양을 치는 흥의 일상, 오체투지를 하는 불교신자들, 점쟁이의 예언, 빠드마삼바바의 손금 등 티베트의 전설이나 문학작품 뿐 아니라 티베트인의 삶의 모습까지도 잘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티베트적 전통을 잘 표현해낸 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묘사가 아닐까.

작품 속 여주인공 흥은 가족 끈에 매듭을 만들어 날짜를 쟀다. “허리에 찬 그 가족끈은 뭐냐”고 묻는 타빠이는 그나마 그 정도의 관념조차 갖고 있지 않다. 그는 날짜를 세어서 무엇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흥의 시간에 대한 사유가 근대적 시간관념을 만나게 된 것은 마을에서 노랑 모자를 쓴 청년을 만나면서부터였다.

흥은 그를 뵈히 바라보았다. “머칠이나 걸은 거예요?” “몰라요.” 흥이 가족끈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걸로 따져봐야 하는데, 좀 세어주세요.” “매듭 하나가 하루란 말이죠?” 청년은 흥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거 재미있네요. 92일.” “정말요?” “한 번도 안 세어 봤어요?” 흥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 “우리 티베트인들은 나이를 따질 줄 모르죠. 하지만 이걸 다 알아요. 봐요, 열 아홉 살이라고 하잖아요.<sup>17)</sup>

도시적 삶에 익숙한 노랑모자의 청년은 흥이 중세시대를 살다 나온 사람이 아니면 외계인일 것이라 생각한다. 자본주의적 삶의 단맛을 한 번 맛본 흥은 결국은 “손에는 전자시계를, 허리에는 근사한 새 워크맨을 차고, 머리에는 헤드폰을 쓴” 젊은이의 짝이 되어 마을에 남게 된다.

여기에 세 사람에게 의해 표현되는 시간이 있다. 그것은 흥에 의해 표현되는 ‘일상의 시간’, 타빠이에 의해 표현되는 ‘종교적 시간’, 노랑모자의 청년에 의해 표현되는 ‘자본주의의 시간’이다. 먼저 흥의 시간을 보자.

흥은 새벽에 일어나서 양젖을 짜고, 차를 만들고, 짬뽕 죽 한 대접을 먹는다. 하루치 먹을 거리를 양피 자루에 넣고 등에 검은 술을 걸쳐 메고는 채찍을 휘두르며 산 위로 양 떼를 몰고 간다. 생활이라는 게 이랬다.<sup>18)</sup>

이것이 타빠이를 만나 길을 떠나기 전 흥의 일과이다. 산촌에 살던 흥은 양치기였으므로, 스스로

16) 扎西達娃, 앞의 책, 69쪽.

17) 扎西達娃, 앞의 책, 78~79쪽.

18) 扎西達娃, 앞의 책, 74쪽.

끼니를 해결하고 양만 치면 된다. 굳이 시계로 시간을 썰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근대적인 일상의 시간이다. 길을 떠나면서 총은 날짜 계산을 하기 위해 가죽 끈을 준비하지만, 타빠이는 그 조차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타빠이는 오직 종교적인 관심 외에는 없다. 작품 속 '종교적인 시간'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작품의 앞부분에서 전생활불 쌍제다푸는 상발라의 전투에 대해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 백년 간의 전쟁이 끝나고 요마(妖魔)가 모두 제거되면, 간판사 쯡커바의 무덤이 저질로 열리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다시 한 번 천년을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런 뒤에는 또 거대한 폭풍과 물난리가 날텐데, 마지막에는 홍수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운이 좋아 살아남은 자는 신들의 구원을 받아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세상이 다시 생겨날 때, 다시 한 번 종교가 일어날 것이다.<sup>19)</sup>

수 백년이나 1000년이 결코 인간의 시간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종교적 구원만을 최상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타빠이 역시 이 '종교적 시간'에 속해있는 것이다.

반면에 마을에서 만난 청년은 근대의 '자본주의적 시간' 개념에 익숙한 사람이다. 근대적 삶은 지역적으로 시간을 통일시켰고, '시간은 돈'이라는 관념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간접했으며, 손목시계를 통해 일상을 통제하고 있다. 마을의 청년은 시간, 속도, 경쟁 등의 개념에 익숙하다. 그가 보기에 총과 같이 시간적 개념이 없는 사람은 신기할 뿐이다.

「내 소중한 버림받은 자식들」의 이야기가 끝난 후 '나'는 소설 속 주인공을 찾아내기 위해 쿤륄산에 오른다. '내'가 쿤륄산 정상에서 본 시계는 2000년 8월 11일 오전 9시 46분이었으나, 다시 시계를 보자 오전 8시 3분이었다. 쿤륄산을 넘으면서 시간이 거꾸로 가기 시작한 것이다. 전자동 태양력 시계에 나타난 시간과 날짜는 정상 속도의 5배로 거꾸로 가고 있었다.

내 사고는 여전히 논리적이었으며, 기억력과 분석력에도 문제가 없었다. 태양은 여전히 동에서 서로 움직이고, 우주는 어찌 되었건 자체적인 규율대로 존재하며 운동하고 있었다. 낮과 밤도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시계 바늘은 여전히 거꾸로 돌고, 요일과 날짜도 거꾸로 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내 생체시계를 혼란에 빠뜨리며 유채이탈의 느낌을 갖게 만들었다.<sup>20)</sup>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데에 대한 묘사는 분명히 근대적 시간과는 다른 티베트인의 시간을 표현하려 한 것이다. 시간에 대한 관념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강조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티베트인의 전통적 관념 속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길목이 되는 쿤륄산 정상을 넘자 왜 시계가 '거꾸로' 가기 시작했을까. 소설가는 근대적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티베트적 전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역사적 '퇴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타빠이가 죽고 난 후, 총과 '내'가 함께 길을 되짚어 가기 시작하자 "시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 것이다.

### 3-3. 종교의 길, 공산주의의 길, 희미한 제3의 길

작품 속 인물들의 지향한 것은 결국 무엇이었는가. 소설 속 주인공 타빠이(塔貝)와 총(瓊)은 경전에 나오는 인간정토 상발라를 찾아 길을 떠난다. 소설의 전개로 보면 타빠이는 이미

19) 扎西達娃, 앞의 책, 71쪽.

20) 扎西達娃, 앞의 책, 88쪽.

오래 전부터 길을 걷고 있었고, 훙은 우연히 타빠이의 순례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타빠이는 자신의 철저한 종교적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나는 전생에서 지혜와 복덕을 쌓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따랐기에, 나락으로 떨어져 거짓신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아귀로 화하지 아니한 것이다. 중간계에 태어나서, 인간의 몸으로 환생한 것이다. 해탈에 이르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여자와 부는 내게 하찮은 것이요, 외물이요, 걸림돌일 뿐이다.<sup>21)</sup>

타빠이는 신앙심이 충만한 인물인데 반해 훙은 그렇지 못하다. 훙이 애초에 타빠이를 따라 나선 것도 성지순례에 동참하겠다는 것보다 양치기의 단조롭고 외로운 삶을 탈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산골에서의 고립적 삶을 피하여 대처에 나온 훙은 물질적 유혹에도 유난히 약하다. 순례 도중 처음으로 들른 마을에서 훙은 그곳 젊은 남자를 만나 “음악도 있고, 맥주도 있고, 디스코 음악도 있는” 곳에 가서 재미있게 놀지만, 타빠이는 “온갖 형상과 사람의 형체로 번쩍번쩍 흔들리는 화면 위의 화려한 색깔의 그림자들 때문에” 괴로워 녹초가 되어 버린다. 타빠이는 자신이 가려던 길이 “대혼란으로 가득 찬 소란한 도시로 이어진 길이 아니었다” 혼자 되뇌인다. 이 때 술에 취한 훙이 돌아온다. 물질적 쾌락에 흠뻑 빠진 훙은 그곳에 더 머물기를 원하지만, 타빠이는 반대한다. 타빠이와 훙은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에 의해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현대 티베트 두 얼굴을 표현한 것이다<sup>22)</sup>. 작가는 타빠이를 통해서 수천년을 전해 내려온 티베트인의 종교적 자부심과 고도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면, 훙을 통해서 중국 22개 성, 5개 자치구 중 가장 생산력이 낮은 ‘시짱 자치구’의 물질적 욕망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두 개의 대립적 자아는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 훙이 보기에 타빠이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헤매고 돌아다니기만 하는” 것이다. 만약 타빠이와 훙에게 일정한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들이 대표하는 두 개의 세계는 티베트가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과연 길은 어디에 있는가. 타빠이가 술집에서 만난 노인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산을 가리키며 말한다.

“저기 저 길로 간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네. …… 저 길만은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1964년인가”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여기서도 인민공사가 시작됐네. 모두 공산주의의 길을 가야한다고 얘기했지만, 막상 그게 뭔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냥 극락같은 거라고만 했지. …… 그러다가 마을사람들 몇이 공산주의의 길로 간다고 재산을 다 팔고 짬뽕 자루를 짚어지고 마을을 떠나 쿤륄산맥을 넘었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네. 그 뒤론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저 길을 오르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네.”<sup>23)</sup>

노인은 사회주의적 개혁이 실패했음을 말하고 있다. 1950년대 후반 농촌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인민공사와 대약진운동이 변방인 티베트에도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의 말처럼, 공산주의가 무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공산주의적 개혁은 마치 쿤륄산맥을 넘는 것처럼 지난하고 위험한 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작품 속 인물들을 배치하는 주체자로서의 ‘나’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가.

21) 扎西達娃, 앞의 책, 82쪽.

22) 소설 속 인물 타빠이와 훙, 그리고 소설가인 ‘나’와 관련하여 王芳은 「无尽的长路,不息的前奔 -- 扎西达娃小说『系在皮绳扣上的魂』人之生存本相析」에서 훙은 “추구하는 주체로서의 ‘나’(追求的主体的我)”이고, 타빠이는 “추방된 객체로서의 ‘나’(被放逐的客体的我)”이며, 소설가는 “지난 일을 돌이켜 앞으로 나아가는 ‘나’(反思进取的我)”라고 하는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汉中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 2004年 第3期에 수록.

23) 扎西達娃, 앞의 책, 84쪽.

먼저 작품 속 ‘소설의 완성’이라는 점과 관련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사랑스런 버림받은 자식들」이라는 소설은 ‘내’가 예전에 쓴 작품이다. 작품은 구도를 떠난 두 젊은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총을 마을에 두고 혼자 길을 떠난 타빠이가 피를 토하며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 결국 이야기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다. 왜 소설가 ‘나’는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못했을까. 소설가 ‘나’는 종교적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종교적 국외자의 입장에서 인물을 그려내다 보니 의식내면에 대한 묘사는 전혀 없고 겉모습에 대한 묘사밖에 없는 것이다. 타빠이가 죽어가는 대목에서 ‘나’는 사색에 잠긴다.

나는 왜 지금까지 ‘새로운 인간’의 형상을 그리지 못했을까? 이것은 더욱 큰 착오인 것이다. 인물이 창조된 다음, 그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객관적 사실이 되었다. 만일 누군가가 이 위대한 시대에 왜 그런 존재들을 허락했느냐고 물으면, 나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sup>24)</sup>

작가는 티베트적 전통과 사회주의적 세계관의 경계에 걸쳐있는 사람이다. 티베트의 종교적 세계관의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위대한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진 작가의 이중적 고뇌가 엿보인다.

이번에는 「티베트, 가죽 끈 매듭에 묶인 영혼」이라는 이 소설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기로 하자.

“당신은 죽지 않을거요. 총, 당신은 이 여행의 시련을 이겨냈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새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조금씩 빚어갈 거요.” 나는 고개를 들어 총을 바라보았다. 총의 진실된 눈빛 속에서 나는 희망을 보았다. …… 타빠이 대신 내가 앞서고, 총은 나를 따르면서, 우리는 함께 길을 되짚어 가기 시작했다. 시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sup>25)</sup>

이제는 ‘내’가 타빠이를 대신해서 총을 인도하는 것이다. 주재자 ‘나’는 총에게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고, 그는 또 총의 진실한 눈빛에서 희망을 보게된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방향적 모호함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 4. 맺는말 - 소수자(minority)의 불안감

티베트 출신 작가 자시다와의 대표작 「티베트, 가죽 끈 매듭에 묶인 영혼(西藏, 系在皮繩扣上的魂)」을 살펴보았다. 이 작품은 티베트의 전설이나 종교 등 전통적인 요소와 환상과 풍경을 적절히 배치했고, 무엇보다 ‘티베트인의 인생’을 잘 그려냈다. 자시다와는 티베트가 자치권을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한 시기에 작품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에 힘입은 바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 독자들에게는 자시다와가 이국적 취미로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는 80년대 중국문단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 기구하기만 했던 티베트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사실상 자시다와의 문학은 티베트가 처한 복잡한

24) 扎西達娃, 앞의 책, 90쪽.

25) 扎西達娃, 앞의 책, 92쪽.

현실적 문제를 정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한족(漢族) 작가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부족한 중국의 상황에서 소수민족 작가로서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컸을 것이다. 하지만 본 작품에서 찾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작품에는 길에서 헤매는 티베트인들이 나온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헤매고 있다. 집을 떠나 헤매고 있는 티베트인은 결국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시간대를 살면서도 다른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들. 티베트의 현지 시각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자시다와는 ‘모호함’이라는 지적을 비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모호함’은 여러 가지 해석을 동반한다. 모호함의 정체는 무엇인가.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유보’일수도 있고, 작가의 ‘입장부재’ 일수도 있으며, 아니면 ‘모호함’ 자체가 바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 일수도 있다. 아무튼 어떠한 경우라도 중국사회의 소수자로서의 ‘불안감’이 반영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작가는 현실과 환상을 아우르는 창작기법을 통해 읽는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복잡함’의 외피를 구축하기도 한다. 1980년대 중국이라는 상황에서 소수민족 작가의 ‘복잡함’이란 검열에 대비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것은 아닐까. 티베트의 현실을 표현해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 아닐까.

비록 모호한 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시다와의 문학은 한족(漢族) 출신 작가에 의해 ‘해방(解放)’이 구가(謳歌)되던 티베트문학에 비하면 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비록 중국어(漢語)로 씌어지긴 했지만, 티베트 출신으로 자기 기억을 기록하는 작가가 탄생한 것이다. 프랑스 역사학자 에르네스트 르낭(Ernest Renan 1823~1892)은 「민족이란 무엇인가」에서 민족창출의 근본적인 요소로 ‘망각’을 말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기억’이라는 행위의 정치적 의미를 생각해본다. ‘폭력’을 포함한 통일의 과정을 기억하는 행위는 ‘항쟁(抗爭)’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으로서의 문학’은 작품 속 인물의 의식적 각성의 정도나 역사사건 재현의 구체성 여부, 혹은 표현기법 등과 무관하게, ‘역사에 대한 기억’이라는 역할 만으로도 저항의 메시지를 띄게 되는 것이다.

현대 티베트 문학을 연구하는 시각이 중국의 국내외에서 각기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55개 소수민족의 화합이 국가통합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이라는 명분 하에 그 불평등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중국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통합 과정에 있어서의 강제성과 부자유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특히 이 방면 연구에 있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에 그러한 비판적 시각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에서 현대 티베트 사회·문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다. 학문연구의 실사구시적 자세를 갖춘 지혜로운 연구적 시각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 소나무, 2000
- 고부웅, 『초민족 시대의 민족 정체성』, 문학과 지성사, 2002
- 백영서, 『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 비평사, 2000
- 니시카와나가오 저, 윤대석 역,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2002
- 한국사연구회,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지식산업사, 1995

-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 해안, 2003.
- 김규현, 『티베트 역사산책』, 정신세계사, 2003.
- 김규현, 『티베트 문화산책』, 정신세계사, 2004.
- 소갈 린포체 저, 오진탁 역, 『티베트의 지혜』, 1999.
- 여동완, 『티벳속으로』, 이레, 2000.
- R.A. 슈타인 저, 안성두 역, 『티벳의 문화』, 무우수, 2004.
- 알라이 저, 계곤 역, 『티베트의 고독 1, 2』, 아라크네, 2000.
- 扎西達娃, 『西藏隱秘歲月』, 長江文藝出版社, 1993
- 王緋(1993), 「魔幻與荒誕: 攥在扎西達娃手心兒里的西藏: 『西藏, 隱秘歲月』」, 『當代作家』 1993-4
- 王緋(1993), 「魔幻與荒誕: 攥在扎西達娃手心兒里的西藏」, 『當代作家評論』, 1993-4
- 立春(1994), 「西藏民俗與生活的窗口: 扎西達娃的 『西藏, 系在皮繩結上的魂』 和 『西藏, 隱秘歲月』」, 『青年文學』 1994-5
- 扎西達娃(1994), 「營地. 部落. 聖地」, 『青年文學』 1994-1
- 扎西達娃(1994), 「桅杆頂上的墜落者」, 『西藏文學』 1994-2
- 馬麗華(1997), 「靈魂三嘆: 扎西達娃及其創作」, 『當代作家評論』 1997-2
- 李正文(1998), 「當代少數民族文學創作與宗教」, 『西南民族學院學報: 哲社版』, 1998
- 全國第三屆少數民族文學創作會議(1998), 「關於少數民族文學的問答: 少數民族作家答本刊題卷問」, 『南方文壇』
- 曉雪(1995), 「走向新世紀的中國少數民族文學」, 『民族團結』, 1995-3
- 熊忠武(1998), 「新時期文學流派評論」, 『培訓與研究: 湖北教育學院學報』, 1998-2
- 白崇人(1985), 「讀 『系在皮繩扣上的魂』 斷想」, 『文藝報』 1985年11月2日。
- 毛里和子編, 『現代中國의 構造變動(1)-大國中國への視座』, 東京大學出版會, 2000
- 上同, 『現代中國의 構造變動(7)-中華世界アイデンティテイの再編』, 上同, 2000
- 可兒弘明外編著, 『民族で読む中國』, 朝日新聞社, 1998
- 平野聡, 『清帝國とチベット問題 - 多民族統合の成立と瓦解』, 名古屋大學出版會 2004
- 石浜裕美子, 『チベットを知るための50章』, 明石書店, 2004
- 山口瑞鳳, 『チベット(改訂版)』, 東京大學出版會 2004
- 曹長青, 『中国民主活動家チベットを語る』, 日中出版 1999
- 石浜裕美子著・永橋和雄写真, 『図説 チベット歴史紀行』, 河出書房新社, 1999
- Lauran R. Hartley and Patricia Schiaffini-Vedani (Edit), *Modern Tibetan Literature and Social Change*,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and London, 2008
- Pommaret, *Tibet*. Thames & Hudson, 2003
- French, Patrick, *Tibet, Tibet*. Random House Inc, 2003
- Heath, John, *Tibet And China In The Twenty-first Century*. Palgrave Macmillan, 2005
- Marshall, Julie G, *Britain And Tibet 1765-1947*, Routledge, 2005
- Apte, Robert Z, *Tibet*. Lightning Source Inc, 2004
- Palace, Wendy, *The British Empire and Tibet, 1900 - 1922*. Routledge, 2005
- Wissing, Douglas A, *Pioneer in Tibet*. Palgrave Macmillan, 2004
- McKay, Alex, *The History of Tibet*. Routledge, 2003

Blezer, Henk, *Religion and Secular Culture in Tibet*. Brill Academic Pub, 2002

Grunfeld, a Tom, *The Making of Modern Tibet*, M E Sharpe Inc, 1997

Bay, Jane, *Precious Jewels of Tibet*. Clear Light Pub, 1998

<Abstract>

Tibetan Literature as a Memory of Margin in the Sino-Centered World  
—Focusing on ZaXiDaWa's *Tibet: The Soul Tied to the Knots of a Leather Rope*

KIM, Yongsu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modern memory of Tibetan people and their view from the periphery on the ruling system of the Sino-centric world by focusing on the masterpiece by ZaXiDaWa, a contemporary Tibetan writer active in Chinese literary circles, *Tibet: The Soul Tied to the Knots of a Leather Strap Ropes*. ZaXiDaWa was born in Batang county in Sichuan province in 1959, the very year Tibet lost its independence. His father was an ethnic Tibetan in an executive position and his mother was a Han Chinese. He spent his childhood in Chongqing and after graduating from junior high school in 1974, he wrote scripts and also took charge of stage decoration for Tibetan drama troupes. In 1978, he spent a year in Beijing studying and training and began publishing short stories in Mandarin from 1979 onwards. His appearance as a Tibetan writing in Mandarin shook the Chinese literary circles. In particular, his use of the Latin American magical realist style from around 1985 was eagerly welcomed. While attracting readers by using techniques of crossing of spatio-temporality, counter-current and rotation of time, and the intersection of reality and illusion, he at the same time successfully depicted the inner world of contemporary Tibetans, which was represented by the mixture of the yearning for both religious salvation and material civilization. This research is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part introduces PRC's policies toward ethnic minorities and Tibetan history as a background for ZaXiDaWa's literary works. Second part is an analytical criticism of his works. The special interests of this research are in Tibetan history and political feelings of uneasiness, historical identity of Tibetan people, the confusion of traditional and modern values, and anxiety of ethnic minority.

Keywords: Tibetan Literature, ZaXiDaWa(扎西達娃), *Tibet: The Soul Tied to the Knots of a Leather Strap Ropes*(西藏, 系在皮繩扣上的魂), Identity of Tibetan, Minority Literature of China